산업단지, 전력 수급차질 대비하라!

산자부, 수급차질 대비 비상대책반 운영키로 ... 수요감축 전제 안정

여름철 이상고온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충분한 전력 공급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전력 공급예비율이 12.1%에 이르러 한여름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.

산업자원부에 따르면, 여름철 전력 최대수요는 무더위로 인한 냉방용 수요 증가, 하반기 내수경기 개선에 대비한 설비투자 회복 가능성 등에 따라 전년대비 7.4% 증가한 5503만k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.

특히, 1994년과 같은 이상고온이 발생하면 최대수요가 5771만kW에 도달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. 냉방용 수요가 11.1% 증가한 1138만kW에 달하고 이상고온이 발생하면 1370kW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.

그러나 하계휴가 보수기간 조정지원, 자율절전 지원 및 효율향상 사업 등 적극적인 전력 수요관리를 통해 원전 4기의 발전분량인 468만kW의 수요를 감축한다는 전제 아래 수급에는 이상이 없을 전망이다.

산자부는 전력 급증에 대비해 울진원전 6호기, 인천복합발전소 등 신규 발전소의 조기준공, 기존 발전소의 예방정비 조기완료 등으로 전년대비 7.3% 증가한 6171만kW의 전력 공급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.

대비책을 완료하면 전력 공급예비율은 안정수준인 12.1%에 이르고 이상고온이 발생해도 6.9%의 예비율이 확보되게 된다.

전력 수요가 이상고온 등으로 5771만kW까지 올라가더라도 전력 예비율이 6.9%에 달해 한여름 전력 소비 피크기간에도 전력 수급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.

산자부는 비상시에 대비해 직접부하제어, 비상절전을 위한 협약체결 등의 별도대책을 통해 추가로 443만kW의 비상예비전력을 확보키로 했다.

또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7-8월 전년동기대비 5% 이상 전기를 절약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Cash-Back 행사도 갖기로 했다.

아울러 전력 소비가 급증하는 7-8월에는 전력 수급상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책을 강구하는 등 효율적인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<전력수급대책본부>를 구성하고 산하에 한전, 발전회사 등 관련기관 합동의 <비상수급 대책반>을 운영키로 했다.

<화학저널 2005/05/31>